



첫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태국 아웃리치- ED2, FTS 후기]

1. ED2를 마치며



ED2 세미나를 통해 제자도와 전도에 대해 알고 싶어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마치면서 최고의 전도는 우리 자신의 삶을 배웠습니다. 남과 비교도 비난도 하지 말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다짐합니다. 재생산의 제자 세우는 일을 하며,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매일의 삶에 적용하며, 유모가 젖을 아이에게 먹이듯 진정으로 말씀을 먹고 적용하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부싸라 짬배시 [태국 사역자]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먼 거리가지만 제자도와 전도에 대해 배우고 싶어 훈련에 참여하였습니다. 훈련 기간 중 아버지는 회복되었고,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제자도의 삶은 진정한 헌신과 적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는 힘으로 삶을 바꾸고 성장해 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더 많은 제자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적용

하는 삶에서 모범을 보이는 제자가 먼저 되고 싶습니다.

*타와차이 스카윙 [태국산디팜난 교회 담임목사]

저는 하나님과 깊이 친밀해지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ED2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일대일 제자 양육의 시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말씀대로 살며 제자와 전도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수업을 준비하여 경건의 시간과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도록 훈련할 것입니다.

*땸 [태국교회 담임목사]

2. FTS를 마치면서



..... 처음 김정우 선교사님을 통해 갈라디아서 과목을 시작으로 FTS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세미나는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팀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 중에 받은 FTS는 두 번째 팀 사역을 시작할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팀에는 계획 없이 막무가내로 선교를 했다면 이제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제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송호선 선교사 [태국 싸꼐나컨]**

 FTS 과정을 통해 성경 강의 준비와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BEE의 강점인 성경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우 선교사님의 강의를 참여하며 느꼈던 것이 BEE 정신과 방법이었음을 알고 놀랐으며, BEE 세미나할 때 배운 것을 잘 활용하고, 나중에 FTS 과정을 공부하게 될 분들에게 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훈련 받으면서 갈라디아서를 이전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믿음에 대해 다시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임태호 선교사 [산티팜 핫아이 교회]**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기쁜 마음으로 신청하고 기다린 모임이었지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었다. 그러나 개회 예배, 과제, 섬기시는 분들과의 만남으로 마음이 가벼워진다. 온유하신 얼굴과 따뜻한 섬김을 통해 시간마다 행복했고 짐이 아닌 복음의 말씀과 함께 참여하는 동료 선교사님들과의 교제를 통해 삶이 풍성해짐을 느낀다. 과제를 동료와 조장님과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장님의 지도가 아닌 도움과 섬김을 받으면서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긴다. 배움이 부담이 아닌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알아가는 우정의 장이 되어감을 감사한다. 무엇 때문일까? 이 모임을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신 많은 분들의 사랑의 수고가 아닐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결론은 복음이다. 이별의 아쉬움은 다가올 만남의 기대로~ 감사하는 마음과 '살롬'으로 인사한다.

***하철환 선교사 [방콕 톤마이싸두디 교회]**

 처음 BEE 세미나를 접하면서 세미나 진행 방법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일방적인 강의식이 아닌 토론하며 학생과 함께 연구하도록 하는 방법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FTS 과정을 통해 인도자는 전문가가 아니라 진행자라는 말에 마음을 놓고 참석했는데 실제 교안을 작성하다 보니 반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 같아 또 다른 부담이 되었습

니다. 그래도 교안을 직접 팀원들과 함께 작성하고 실습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알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국 땅에서 BEE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많은 태국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말씀 연구의 기쁨을 알아가는 데 BEE가 좋은 도구가 되길 기도합니다.

***권오숙 선교사 [산티팜 교락 교회]**

 FTS를 통하여 예전에 배웠던 갈라디아서를 다시 복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때는 갈라디아서를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었는데 이번 세미나에서 인도자 지침을 만드는 연습을 하고, 실제로 소그룹을 인도하는 훈련을 받으니 그동안 어렵고 희미했던 갈라디아서가 좀 더 선명하게 각인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FTS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인도자님들의 탁월한 인도와 코칭은 연구할 시간이 부족한 훈련생들에게 좋은 지침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한된 시간으로 풍성한 토론을 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FTS의 지침대로 진행되고 다른 훈련생들의 폭넓은 이해와 교수법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전체적인 흐름을 경험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배웠던 과목들을 더 연구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와 노력, 인도자 지침서를 만드는 연습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조미현 선교사 [태국 간자나부리]**

 FTS 과정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갈라디아서를 공부한다는 생각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참여하였습니다. FTS라 하니 실습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견본 학습계획서를 보니 내가 잘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인도자님이 학생들의 입장과 생각을 너무 잘 이해해 주시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잘 지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같은 조원인 조미현 선교사님, 권오숙 선교사님과 함께 팀으로 하나의 학습계획서를 완성해 가는 과정은 대학 시절을 생각나게 해 재미있기도 했고, BEE를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강미라 선교사 [산티팜 교회]**

🍌 FTS를 하면서 BEE 사역이 태국 땅에 절실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역자들은 대부분 당장 교회 사역을 통해서는 생계조차도 해결되지 않는 형편이라 이중직을 갖는 경우가 많고, 교회 사역에 대한 전적인 책임, 교회에 필요한 일(건축, 수리, 운영, 구제)에 너무 큰 부담이 있어 담임목사가 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태국의 지방이나 도시의 작은 교회에서는 소수의 열정적인 평신도와 공동으로 사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직 사역자와 열정 있는 성도로 구성된 교회 리더들이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설교의 부담과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거의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형편 때문에 조그만 위기에도 교회가 쉽게 무너지고, 사역자 자신도 쉽게 지쳐서 번아웃되기도 합니다. 태국 지방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를 현실적으로 돕고, 번아웃에 빠져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BEE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점마다 BEE 사역을 진행할 수 있다면 분명 태국교회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태국 내에 BEE 사역을 할 수 있는 현지인 지도자를 많이 세워야 합니다..... 이번에 김정우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태국 현지인 FTS가 개설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BEE Thailand'가 세워지는 날을 소망해 봅니다. 제가 더 크게 소망하는 것은 태국 곳곳에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많이 세워져서 복음이 태국 마을 마을마다 힘있게 전파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국인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FTS를 섬겨주신 BEE Korea와 태국까지 직접 찾아와 섬겨주신 동남아 테이블 인도자님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박정문 선교사 [깁자나부리 교회]

3. 태국 한인 선교사 FTS와 ED2를 마치며

🇹🇭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낌없는 헌신을 보여 주신 조문상 선교사님과 동남아 테이블

분들, FTS에 참여한 한인 선교사 일곱 분, ED2를 인도해 주신 김형회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FTS와 ED2은 태국에서 BEE가 기초석을 놓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하고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FTS를 마친 한인 선교사들은 저와 함께 FA로 섬기면서 대부분 FT가 되어 함께 동역하게 될 것입니다. FT가 된 후 각자 자신의 사역지에서 태국 사역자들을 모집해서 BEE 세미나를 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ED2를 마친 태국 사역자들과 ED1과 마가복음 세미나를 지속하여 2024년 5월경 태국 사역자 FTS를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역자로 세워진 후 하나님께서 태국 전역에 BEE 세미나가 점차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올 4월에는 치앙라이에서 DPM 과정이 12명을 대상으로 시작될 예정이며, 코랏 사역자학교에서 5월에 태국어 갈라디아서, 11월에 태국어 로마서가 진행될 예정이며, 방콕과 파타야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방콕을 중심으로 코랏, 파타야, 치앙라이, 치앙마이의 5개 지역에서 BEE 세미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태국은 현재 기독교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태국 전역에 BEE 세미나가 열려 말씀으로 풍성하게 세워지는 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김정우, 박종철 선교사



개강 예배(상), 태국 아웃리치팀 리트릿(하)

[정리 정주영 편집 최선]

BEE 소식

1. 2023년 “빛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빛진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헬리안이나 야만안이나 자혜 있는 자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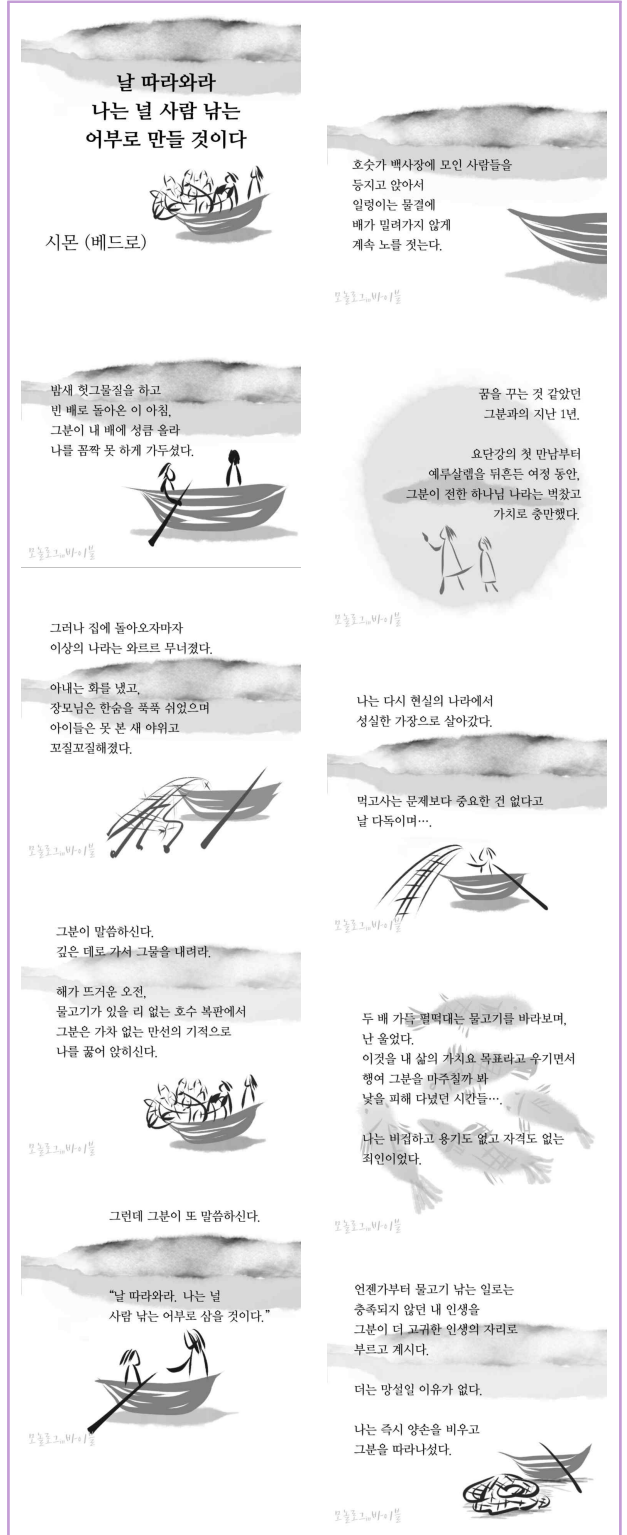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1:14).”

2. 3월부터 토요 BEE 기도모임은 한동홀에서 ‘비전홀 (본관 지하1층)’로 옮겨 모입니다. 새롭고 넓은 장소가 선교자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로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monotoon [모놀로그 in 바이블]

김수경 작가의 모노톤 일러스트와 함께 시간순으로 읽는 성경 인물들의 생생한 독백을 정주행하며 신약성경 차례대로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



출처 https://instagram.com/monotoon_kimsookyun